"김위원장, 내가 직접 왔으니 시원하게 처리합시다"

차별받는 호남에 해준것 없어 가슴 아파
"MB의 국정운영은 안하무인식" 비판도

〈6면에서 계속〉

◇**내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나는 내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번도 고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어 본 적이 없다. 차별받는 호남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못해 늘 가슴이 아팠다. 그렇기에 호남인들과 고통을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때로는 지역감정을 선동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나는 고향인 전라도를 찾는 데 많이 망설였고 가지 않았다. 가고 싶었지만, 진정 만나고 싶었지만 고향 땅을 일부러 밟지 않았다.

◇**동교동계**=한국 정치사에 동교동계는 엄연히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계파 장치의 폐해를 거론하며 우리 동교동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출구가 안 보이는 깜깜한 독재시대에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어찌 됐겠는가. 그리고 나는 어찌 됐겠는가. 뭉쳐 있음이 힘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한없이 고맙지만 그 고마움을 제때,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대우 그룹의 해체**=김(우중) 회장의 몰락과 대우그룹의 해체는 진정 내가 바라지 않은 불행한 일이었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대우그룹의 미래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내 의지를 경시하고 시장 움직임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왜 구조조정을 망설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그가 돌아와 다시 새 출발할 것으로 믿었다. 돌아보면 그의 성장신화를 묻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었다.

◇**백남준 해프닝(?)**=리셉션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과 나, 힐러리 여사와 아내가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고 있을 때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씨가 나타났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휠체어에서 내려 클린턴 대통령 앞으로 다가섰을 때 그만 그의 바지가 흘러내렸다. 내의도 입지 않아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나와 클린턴은 웃음으로 그 순간을 넘겼다. 천재 예술가의 천진한 행위 예술로 간주했다.

◇**남북 정상 회담의 클라이맥스**=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과거 7·4 공동 성명도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과 김영주, 이런 식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대표해서 임동원, 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표해서 김용순, 이렇게 합시다"

"그때는 이후락씨가 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인 내가 직접 와서 정상 회담을 한 것입니다. 일 처리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전라도 태생이라 그런지 무척 집요하군요" 갑자기 튀어나온 김 위원장의 농이었다. 절박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렸다. 나도 다시 그에게 농담을 날렸다.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 아니오. 그렇게 합의합시다" "아예 개선장군 칭호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개선장군 좀 시켜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덕 좀 봅시다." 그러자 비로소 김 위원장이 웃었다. 정상 회담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저녁 7시였다. 합의문은 '남북 공동 선언'으로 하기로 했다.

◇**권노갑 2선 후퇴**=12월17일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이 순명(順命)이라고 했다. 그는 당내의 2선 후퇴론에 시달려 왔다. 민주당 최고위원 한 명은 내 앞에서 그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를 보내기로 했다. 따르는 동지들과 눈물의 회동을 했다고 들었다. 어찌 보면 정치는 참으로 무정한 것이다.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내리는 눈발을 보며 문득 야당의원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당시가 생각났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했다. 나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전에 전국에 깔려있는 국도 포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동량이 많은 노선을 검증해 고속도로를 신중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국에서 도로 사정이 가장 좋은 서울~부산 구간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못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한 쪽으로 물류가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산업 발전도 한곳으로 치우치게 마련이다. 그후 나의 이 같은 반대를 두고 단견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그때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두 아들에 대한 변호**=아들의 억울함은 나중에 알았다. 두 아들에 대해 아비로서 변호를 해보겠다. 당시 정권 교체를 확신했던 검찰은 '지는 권력'을 향해 비수를 겨눴다. 그 표적이 대통령 아들이었고, 홍업이었다. 홍업의 주변 인사 580명을 조사했다. 그중 오랜 친구를 지목, 홍업의 비리 연루 혐의를 캤다.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의 친구는 검찰의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친구는 출소 후 아들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사망하기 이틀 전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녹취록을 유언을 남겼다.

막내 아들 홍걸은 사람을 너무 믿고 따랐다. 오랜 미국 유학 중에 국내 사정을 잘 몰랐고, 그에게 접근한 사업자에 대해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런 막내의 사람에 대한 '철없는 믿음'을 알고 항상 조심하라고 일렀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실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이명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이 걱정됐다. 과거 건설 회사에 재직할 때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봐도 토건업식 밀어붙이기 기운이 농후했다. 통일부·과기부·정통부·여성부 등이 폐지 및 축소되는 부처로 거론됐다. 내가 보기로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부처였다. 그 단견이 매우 위태로워 보였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선 핵 폐기 후 협력'이란 부시 대통령조차 폐기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후보로 나를 찾아왔을 때는 햇볕 정책에 공감한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의 말대로 실용적인 사람으로 알고 대세에 역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장 보편적인 길을 찾는 것이 실용일진대, 그는 실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나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정·부통령제였다. 우리나라에도 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집중된 의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대통령 유고시에 국정 중단을 막을 수도 있다. 지금도 정·부통령제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대통령제 하에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비극적 종말을 맞았지만 그 후로도 독재자나 그 아류들이 출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5년 단임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제 민의를 따르지 않는 독재자는 민의로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비로소 그의 영전에 조사를 바친다**=노 대통령은 고향 앞산에서 몸을 날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가혹했을 것이다. 검찰은 해도해도 너무했다. 노 대통령의 부인·아들·딸·형·조카사위 등을 마치 소탕 작전을 하듯 조사했다. 매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사 기밀을 발표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설을 퍼뜨렸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노 대통령 장례위원회 측에서 내게 조사(弔辭)를 부탁했다. 나는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다시 알려 왔다. 내가 준비한 조사는 결국 읽지 못했다. 이제 비로소 그의 영전에 조사를 바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우중 재기 믿었는데… 대우 몰락 불행한 일
정부 반대로 못 읽은 조사, 이제야 盧 영전에

지난 1987년 9월 8일 5·18광주민중항쟁 후 처음으로 망월동 묘역을 찾아가 유가족과 오열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만찬 모습.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내를 헤드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산가족이 많은데 평양에서 이산 가족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 함께 웃었다"고 적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김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회고했다.